

平生교육과 公共圖書館

鄭 駉 謨*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圖書館數나 그 施設, 藏書數量이나 質, 그리고 圖書館奉仕 現況 등은 너무나 貧弱하여 圖書館問題에 관한한 開發途上國家의 대열에도 들지못한다고 하는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資料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리고 특히 公共圖書館의 경우 그 빈약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 圖書館問題는 福祉國家建設을 大命題로 삼은 現政府에 대해서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왜냐하면 현행 憲法은 國家가 平生교육의 振興을 보장하고 있으며, 平生교육의 기본적인 母體施設은 당연히 公共圖書館으로서, 公共圖書館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平生교육의 振興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第五共和國의 현행 憲法 第29條에 의하면 모든 國民은 능력에 따라 均등하게 教育을 받을 권리가 있고, 教育의 自主性·專門性 및 政治的 中立性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國家는 平生교육을 振興하여야 하며, 平生教育 및 平生교육을 포함한 教育制度와 그 운영·教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法律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平生교육에 까지 憲法으로 보장되었다는 것은 教育에 있어서의 革命的 意志를 나타낸 것이며, 내용상으로는 公共圖書館의 發展策까지도 보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平生교육의 概念이 어떻게 정립되고, 그 制度와 財政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정립되며, 이 法律이 언제 制定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목된다.

이러한 時點에서 本稿은 이러한 制度가 확립되기에 앞서 장차 전개될 몇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우리 나라의 公共圖書館의 未來를 展望하고자 한다.

1. 平生교육과 社會教育

平生교육이니 生涯教育이니 英語의 Life long Education이니 하는 말은 文字 그대로 “搖籃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全生涯를 통한 교육이라고 한다. 사실상 사람은 一生동안 항상 무엇인가를 배우고 스스로 教育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人生은 教

* 韓國圖書館學會會長, 中央大敎授

育”이라는 말도 있다. 이렇게 보면 教育이라는 概念은 참으로 광범하고 막연하다.

그러나 “教育”이라는 말 자체는 본래 “가르쳐서 기른다” 또는 “精神을 啓發시킨다”(Educate or Cultivate)하는 意圖的인 內容이 含蓄되어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教育은 人間의 精神의 能力을 意圖的으로 啓發시키는 것”이라고 筆者는 任意로 규정하고 싶다. (教育學的인 면에서는 語不成說인지도 모르지만). 따라서 平生教育은 “人間 個個人의 立場에서 볼 때 全生涯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長期間의 教育”이라고 해석하고, 또한 社會教育이라는 말은 社會的인 立場이나 요구에 의해서 意圖的으로 이루어지는 大衆의 教育”이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平生教育은 社會나 國家的인 立場에서 볼 때는 長期的이고 영속적인 社會教育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平生教育과 社會教育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여하간 教育이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등등에 따라서 教育名稱도 內容도 形式도 方法도 다양한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教育에 대한 일반적인 認識은 “教育은 學校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리하여 高等教育을 마치면 教育은 끝나는 것, 大學에 다니지 못하면 教育이 중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教育은 으레히 教育者와 被教育者 그리고 教育資料(教科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3者를 教育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3要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學生들은 教科書(또는 參考書)를 가지고 學校에 가서는 반드시 先生이 있어야 공부가 되고, 學校가 끝나면 課外敎師나 學館敎師나 家庭敎師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러한 敎師를 대신할 어떤 사람이 옆에라도 있어야 공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教育의 3要素는 公式的 教育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條件이라고는 볼 수 있으나 非公式的인 教育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家庭教育에 있어서는 家訓이나 家風, 父母의 규범있는 言行自體가 자식에 대한 教育이요, 他人의 言動이나 事物이나 自然을 관찰하고 무엇인가 스스로 느끼는 것도 教育이요, 혼자서 冊을 읽어서 어떤 知識이나, 敎養을 얻는 것도 教育이다. 그 뿐만 아니라 學校教育에 있어서도 敎室에서의 正常授業時間을 떠나서는 學生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며 특히 大學教育은 講義室 이외에서 學生들 스스로 공부해야하는 時間과 教育量이 훨씬 많은 것이다. 따라서 大學은 흔히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非公式教育은 教育者와 被教育者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被教育者와 教育資料(冊)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被教育者 홀로서도 이

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平生敎育이나 社會敎育은 어떤 形式의 敎育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특별한 일시적인 경우 이외에는 모두가 非公式敎育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는 일정한 敎育者나 특정한 敎育資料(冊)가 있을 수 없고, 모두가 被敎育者일 뿐이다. 다만 이 수많은 被敎育者들이 각자의 취미와 적성과 어떤 意圖나 目的에 따라서 항상 스스로 自由롭게 공부할 수 있는 施設과 여러 가지의 다양한 敎育資料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施設이란 圖書館이요 圖書館資料일 뿐이다. 그러나 圖書館도 그 設立目的이나 館種에 따라서 이용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다만 公共圖書館만이 그 地域社會의 住民이면 누구나 自由롭게 언제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平生敎育이나 社會敎育을 위한 施設은 公共圖書館이 가장 기본적인 施設이며, 또한 公共圖書館은 본래 이러한 目的을 위해서 設置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행 圖書館法에도 “圖書館은 國民의 敎育과 文化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國民의 敎育”은 全國民에 대한 平生敎育 또는 社會敎育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公共圖書館은 그 地域社會 住民들의 共同의 書齋요, 自由綜合大學이요, 綜合文化센터인 것이다.

물론 平生敎育이나 社會敎育에 공헌하는 기관은 博物館, 美術館, 言論·放送機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필요에 따라 종종 이용될 수 있는 곳이지 누구나 自由롭게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平生敎育이나 社會敎育이 우리 나라에만 있는 새로운 敎育이나 새로운 制度가 아니다. 先進國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實施되고 있는 것이지만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별도의 施設이나 機關이 없고, 다만 圖書館政策이 잘 수립되어 公共圖書館이 발전되고 있는 연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圖書館에 대한 認識

지난 7月 7日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한국평생교육기구」라는 한 단체가 7月 4日에 서울의 南山市立圖書館에서 「한국평생교육의 좌표」라는 主題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여기에서 “평생교육이 일찌기 정착된 英·美·獨·日 등 4개국의 현황”을 소개한 몇가지 예를 보면, 이들 네 나라에서 “寄宿制大學”, “기성인대학”, 正規大學의 “學外 강좌”, “公開大學” “市民敎養講座”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短期的인 成人敎育이며, 이것을 平生敎育이라고 본다면 그 전부가 아니고 극히 부분적인 것이다. 平生敎育이란 사람의

一生동안 自己生活에 종사하면서 每日 每日 餘暇를 善用해서 各자의 職業이나 취미나 適性에 맞는 새로운 敎養과 知識을 꾸준히 익혀가도록 하는 것이지, 短期間의 강의나 강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60~70年生동안을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친다는 말인가? 高名한 學者들이 「한국평생敎育의 좌표」를 設定하기 위해서 더구나 南山公共圖書館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公共圖書館」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보이지 않으니 平生敎育은 누가 어찌하자는 것인가? 이것은 平生敎育을 誤導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反應은 즉각적으로 「東亞文化센터」라는 기구가 開設되고, 여기에서 10月 2日부터 平生敎育을 위한 講座를 開設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講座開設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다만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일은 이 事業이 收益性만 있다면 全國의 모든 言論機關, 放送機關, 學院들 마저도 이러한 강좌를 개설하겠다고 나설 것이고,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그 혜택(?)을 받을 것이며, 그와는 반대로 돈이 없거나 시간에 쫓기며 生活하거나 불우한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할 것이고, 결국 公共圖書館의 設立이나 발전은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강좌는 전국에 많이 개설되면 될수록 좋으나 다만 收益性을 고려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것은 敎養講座나 外國語講座나 趣味講座이므로 이것이 平生敎育의 전부인양 그 이름을 남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國民들은 圖書館에 대한 認識이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敎育者나 學者나 爲政者들 마저도 圖書館에 대한 말이 나오면 비로소 “圖書館은 文化的 寶庫요 學問의 殿堂이요”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막상 圖書館을 발전시켜야 할 문제에 당면해서는 그 중요성을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다만 圖書館界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기회있을 때마다 “圖書館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외치며 노력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고 생각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올바른 圖書館이 거의 없었으니 一般 國民들이나 學者들 마저도 각자 무엇을 알고 싶고, 새로운 情報를 찾고자 해서 圖書館을 찾아 갔을 때, 自己가 기대했던 이상의 훌륭한 知識이나 새로운 情報를 신속하고 정확하고 호뭇하게 손에 안겨주는 혜택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있을까? 圖書館의 진정한 혜택을 스스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圖書館의 중요성을 통감할 수 없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헌신적인 노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俗談에 “무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듯이 國民모두가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圖書館

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3. 情報化社會

현대의 특징을 들어서 情報化社會 또는 知識產業社會라고 한다. 여기에서 “情報란 知識이나 技術이나 學問의 最少單位 또는 그 要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대는 이러한 情報나 知識이 너무나 大量으로 폭발적으로 生産되어 社會에 傳達 流布되고, 모든 사람들의 日常生活은 情報의 洪水속에서 情報에 의해서 생각하고 活動하고, 다시 새로운 情報나 知識을 生産하여 이를 人間에게 有用하게 活用하므로써 個人的 生活을 享有하고, 社會적으로는 文化나 文明을 발전시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人間の 生活樣式이나 制度의 改善, 日常生活에 편리하게 이용되는 모든 文明의 利器는 情報나 知識에 의해서 開發된 人間智慧의 所産인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이 飲食物에서 섭취하는 物質인 「에너지」가 人間の 生體를 움직이고 發育시키기 위한 「에너지」라고 본다면 情報나 知識은 人間の 知性を 발전시키기 위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情報나 知識이 人間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生産量과 流通量이 과다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洪水처럼 범람하는 모든 情報가 人間 누구에게나 일시에 무한정으로 入手되어 유용하게 利用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모든 情報가 人間 누구에게나 價値가 있고 필요하고 有益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人間の 飲食物이 다양한 것처럼 情報가운데에는 ① 有益하고 필요한 情報가 있는 반면에, ② 무의미하고 無價値한 情報도 있고, ③ 불필요하고 有害한 情報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情報는 人間이 物質인 「에너지」를 섭취하는데 필요한 飲食物 이상으로 多種多樣하므로 人間の 社會的 活動에 있어서는 有益하고 필요한 情報만을 선별하여 이를 有用하게 活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人間の 智慧의 尺度는 有益하고 필요한 情報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入手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活用할 수 있는 能力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文化나 文明의 발전, 社會나 國家의 발전도 情報의 效用 如何에 따라 左右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現代社會의 폭발적인 情報의 洪水속에서 어떻게 하여 個人이나 社會나 國家적으로 有益하고 필요한 情報만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活用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情報가운데 가장 주요한 情報는 주로 記錄情報, 또는 活字化된 情報(資料)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情報資料의 生産에서부터

이용에 이르기까지, 生産者로 하여금 良質의 情報를 生産하게 하는 동시에, 利用者들에게는 각기 필요하고 적절한 情報만을 적시에 效果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統轄手段과 方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일찌기 이러한 記錄情報 가운데 最善의 情報를 선택·수집하여, 이를 體系的으로 조직해서, 이용자들이 이를 편리하게 效果的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圖書館이라고 하는 社會制度가 형성된 것이다.

4. 現代의 公共圖書館

圖書館은 文化的 寶庫요, 知識의 寶庫요, 學問의 殿堂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學生이나 學者나 知識人들 중에서 별로 할일이 없는 한가한 사람이나 出入하는 곳으로 認識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이야기에 불과하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現代는 情報化社會로서 學生이나 學者들 뿐만 아니라 公務員이나 產業에 종사하는 管理者나 事務職이나 技術者나 一般教養人이나 나날이 변하고 발전하는 새로운 知識과 새로운 情報를 적시에 광범하게 알지 못하면 각자 自己가 종사하는 일이 非能率의이요, 시대에 뒤질 뿐만 아니라 自己의 任務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따라서 어떤 專門職에 종사하는 사람은 自己의 業務時間 중에도 圖書館에서 필요한 情報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현대는 라디오나 TV 등의 電波媒體를 통해서도 生活情報나 時事的인 情報를 얻을 수 있으나, 이러한 情報는 流通情報로서 教養이나 知識이나 技術이나 專門의이며 구체적인 情報를 얻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國民 각자가 自己에게 필요한 冊이나 기타의 情報資料를 구입해서 읽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대의 情報化社會에서는 必須的인 圖書 이외에는 한두 번 읽기 위해서 個人이 필요한 書籍을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非經濟的이며, 지나친 浪費인 것이다. 그리하여 社會的인 요구나 專門的인 分野에 따라서 또는 각 地域社會別로 이러한 情報資料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共同施設이나 共同的 書齋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각종의 圖書館이다.

이와 같이 圖書館이 각 共同體의 文化的인 共同施設이기 때문에 종래에는 圖書館을 “文化公園”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筆者는 “文化公園”보다는 “文化水源池” 또는 “情報水源池”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公園은 누구나 언제나 편리하게 觀光할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情緒를 순화시킬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비교적 시간여유가 있는 사람이 종종 이용하는 곳이지, 항상 時間에 쫓기며 生活하는 사람들에게는 절실한 곳은 아니며, 水源池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가장 절실히 필요한 存在이기 때문이다.

물론 貯水池는 그 目的에 따라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우선 食水用, 農業用, 工業用, 發電用 등의 貯水池가 있고, 多目的댐도 있다. 이 가운데 특히 食水用 貯水池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生命源이다. 그리고 農業用은 農業에 불가결한 것이며, 工業用은 工業에, 發電用은 發電에 불가결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水源池는 항상 물을 滿水로 貯水해 두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이를 이용하게 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여러가지 施設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食水用을 위해서는 淨水·소독·配水 施設을 갖추고, 각 家庭이나 建物이나 施設物에 配管을 하고, 이를 항상 管理해야 할 것이다. 農業用이나 工業用은 관개와 配水 施設을, 發電用은 發電 施設을 해야 하고, 항상 관리해야 한다. 그리하여 利用者가 필요할 때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현대의 圖書館도 이와 마찬가지로. 國立中央圖書館은 國家의 代表圖書館으로서 종합적인 多目的 情報水源池라고 볼 수 있고, 大學圖書館은 大學의 教育的 學術的인 情報水源池라고 할 수 있고, 學校圖書館은 學校教育에 필요한 情報水源池이며, 각 企業體나 研究所나 政府機關에 附設된 圖書館은 각각 그 目的을 달리하는 情報水源池라고 볼 수 있고, 公共圖書館은 각각 그 地域社會의 종합적인 情報水源池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圖書館들은 우선 편리한 施設을 갖추고 運營豫算을 마련하고, 각각 필요한 情報資料를 선택하여 수집하고, 이를 主題別로 또는 資料의 類型別로 分類하여 書架上에 배열하고, 目錄이나 索引등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情報資料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檢索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案内·指導하고, 누구나가 즐거운 마음으로 圖書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히 奉仕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특히 公共圖書館은 그 地域社會의 종합적인 文化센터로서, 敎養講座나 政府의 事業에 대한 PR, 건강관리, 育兒法, 요리법, 家事 등에 관한 現代生活講習, 藝術作品이나 文藝作品의 展示 등등 거의 모든 文化的福祉活動을 주선하고 그 장소로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5. 公共圖書館의 振興策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대의 情報化社會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圖書館, 그중에도 특히 平生敎育이나 社會敎育의 母體가 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公共圖書館의 現況이 開發途上國家의 대열에도 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은 5千年의 歷史를 자랑하는 文化民族으로서의 가장 큰 恥辱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제라도 晩時之歎의 感은 없지 않으나 現政府가 平生敎育을 보장하고자 하는 意志를 憲法에 明示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政策을 다시 法律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이러한 制度가 확립되기에 앞서 이에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되는 몇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平生敎育을 주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國民皆學의 풍조를 불러 일으키는 讀書運動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平生敎育에 있어서 讀書가 가장 보편적이고 능률적이며, 敎養과 知識은 물론 國民각자가 처하고 있는 환경에서 보다 바람직한 生活을 영위하기 위한 직접적인 技術과 情報를 신속히 받아드리는 手段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讀書는 현대인들의 遊興的 生活의 風조를 씻고 건실한 生活로 유도하는 조용한 生活淨化運動의 효과도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讀書를 위해서 學問과 著述活動을 진작시켜서 良書의 出版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도 일반대중들은 遊興的 퇴폐적인 娛樂記事를 주로 수록하는 週刊誌나 月刊誌 등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를 건전한 生活의 智慧를 줄 수 있는 方向으로 유도하고, 古典이나 건전한 敎養書등을 다양하게 出版하여 暇가로 광범하게 보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이러한 良質의 文獻이나 情報資料를 광범하게 수집하여 모든 國民에게 讀書와 열람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公共圖書館을 모든 地域社會에 균등하게 設置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圖書館이 미비하고 부족하지만 특히 충실한 平生敎育이나 社會敎育의 진작을 위해서는 적어도 大都市에서는 區와 洞單位까지 그리고 地方에서는 郡과 邑面單位까지 設置되어야 할 것이다. (中華民國의 社會敎育法과 全國圖書敎育普及法 참조)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새로운 建物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혹 기존의 建物로서 항상 빈번하게 이용되지 않는 社會福祉施

設(새마을회관 등)등을 보완하여 점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經濟的 事情으로 보아 中高等學校의 圖書館設置까지 義務化하기는 곤란하므로 각 學校의 인근에 公共圖書館을 設置하여 公共圖書館의 기능과 學校圖書館의 기능을 겸하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아파트단지에는 어린이놀이터에 우선하여 公共圖書館設置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이러한 公共圖書館이 지속적으로 그 기능이 충실히 발휘될 수 있도록 소정의 專門職員을 채용하고 圖書館의 運營費(資料購入費, 人件費, 경상비 등)을 國庫나 地方豫算으로 支給되도록 法的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中華民國社會教育法 제14조, 中華民國 全國圖書教育普及法, 제10조 참조)

이상과 같이 公共圖書館은 다만 國民의 讀書施設의 구실뿐만 아니라, 그 地域社會의 종합적인 文化센터로서 政府에서 주도할 平生教育이나 社會教育의 母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은 國民이 文化的 教育的 福祉의 혜택을 균등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公共圖書館設置運動을 제기하는 바이다. 이 圖書館運動은 새마을운동처럼 全國民에게 잘 認識되어 普及되기를 바라며, 이것이 國民文化革命이요 生活淨化運動으로서 國民스스로의 精神的 物質的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自覺하고 讀書가 生活化될 때까지 추진되기를 바란다.

韓國圖書館協會 出版案內

100 서울特別市 中區 會賢洞1街100-177 (社)韓國圖書館協會
☎ (22) 4864·5613 對替計座 서울中央537530

韓國十進分類法 第3版	25,000원	古書分類目錄法(上)	3,500원
韓國目錄規則 第3版 豫定價	10,000원	韓國十進分類法解說	3,500원
公共圖書館의 施設	5,000원	圖書館의 組織과 管理	3,500원
非圖書資料의 整理	3,500원	西洋圖書館史	3,500원
參考奉仕論	3,700원	公共圖書館運營	3,500원
情報科學과 콤퓨터	3,500원	發展途上國의 圖書館	3,500원
情報經濟學原論	4,500원	圖書館 및 文獻利用法	3,500원
大學圖書館建築計劃	8,000원	中國의 典籍	3,500원
圖書館學概論(專門大)	3,900원	圖書館과 社會	3,500원
圖書館學概論(任鍾淳)	3,500원	大學圖書館	3,500원
韓國圖書館史研究	3,500원	舊韓末古文書解題目錄	5,000원
圖書館統計 및 評價	3,500원	韓國의 冊板紋樣	20,000원
公共圖書館	3,500원	圖書館과 資料의 活用法	3,500원
韓國目錄規則解說	3,500원	어린이 圖書館	3,800원